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Media is "Message"

손봉호 (대표주간)

인간의 의식을 물웅덩이에 비유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웅덩이가 깨끗해지고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웅덩이가 물 전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즉 의식의 내용과 성격은 전달되는 정보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로 결정된다. 물론 사람에게서는 취사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릴 수 있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취사선택도 이미 그 이전에 받아들인 정보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흰눈이 온 누리를 채워도 홀로 푸르게 남으리라” (백설 (白雪)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 (獨也靑靑) 하리라) 고 성삼문 (成三問)이 결심했지만 구체적인 현실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 살면 한국어를 하고 김치를 좋아하게 되며,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 개인도 쉽게 비도덕적이 된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사를 세 번이나 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거나 사실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정보를 얻었고 그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도 옳든 그르든 자신이 스스로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를 직접 얻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신문, 방송, 책 등 매체(미디어)를 통해서 얻는다. 그동안 미디어의 종류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

리의 의식 대부분은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채워져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회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는 오늘날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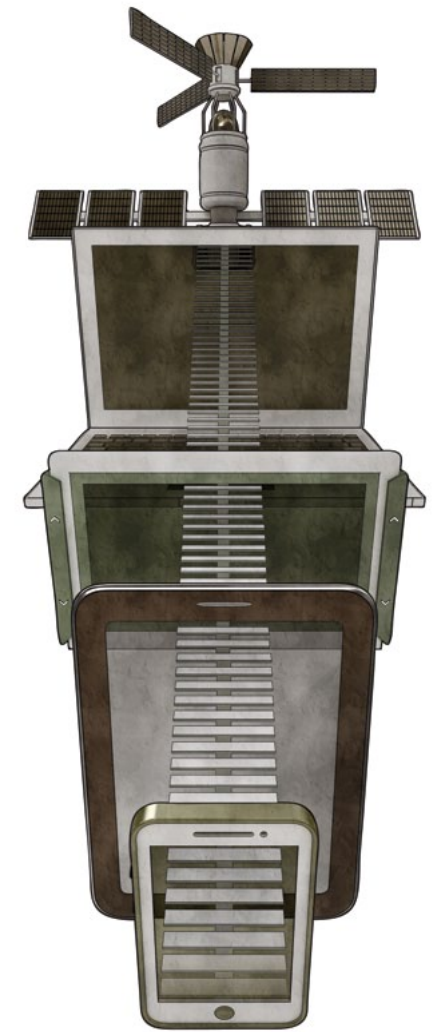
매체들 가운데도 인쇄매체와 달리 방송, 영화,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반추하거나 비판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기다가 맥루한 (Marshall MacLuhan)이 지적한 것처럼 영상매체는 말이나 글처럼 정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linear)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configuration) 우리를 훨씬 더 수동적이 되게 하고 따라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판적 사고는 커녕 사고활동이 전혀 없어도 되도록 우리 두뇌를 게으르게 만든다. 신문이나 라디오 광고보다 TV 광고비가 월등하게 비싼 것은 광고효과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이란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수동적이고 그만큼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매체들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매체라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의 질과 전달방식에 경제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정보

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흠을 낸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라 자체의 의도를 같이 전달하는 또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매체가 정보다” (Medium is the Message)란 맥루한의 말에 일리가 있다.

선진사회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실과 객관성에 대한 정열이 낮은 후진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약한 한국 매체들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광고수입을 늘리려 한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오락 프로는 황금시간에 방송하고 모든 국민과 특히 청소년들이 꼭 시청해야 할 좋은 교양 프로는 한밤중에 방송한다. 정보 소비자들의 질이 낮으면 질이 낮은 정보가 더 효과적이고, 질이 낮은 정보는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을 더욱 저급하게 만들어서 악순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방송의 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청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 동안 우리 언론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 쫓무니 따라 다니느라 사회의 불법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시정함으로 생명 존중이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게을리했다. 세월호 참사에는 한국 언론매체도 정치권 못지않게 큰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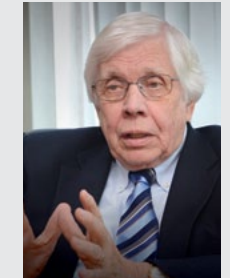
이런 상황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지적했다 (롬 10:17). 물론 성령의 역사, 창조적인 사고,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 등도 중요하고 그동안 형성한 비판능력도 작용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 가치관, 판단과 결정, 행동방식 등은 상당할 정도로 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더럽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며, 그 이후에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더러운 물을 오히려 환영하게 된다. 교회의 설교나 교제하는 성도들의 의식수준이 낮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매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매체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서 교계에는 건전한 기독교 매체들이 많아져야 한다. 가능한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철저히 공정하되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매체가 많아져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한 그런 매체를 많이 이용해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건전하고 행동이 신실해질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세계관동역회에서 <월드뷰>를 발간하고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더 많이 이용되었으면 한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표지인물
클리포드 크리스천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시대여, 진리로 진리를 소통하라 _클리포드 크리스천 Clifford Christians

SPECIAL

- 16 기획칼럼 대중문화와 “진동의 신학” _추태화
- 20 기획칼럼 큰 슬픔 속 “시민종교(civil religion)”의 징후 _박진규
- 23 기획칼럼 기독교영화의 르네상스는 오는가? _강진구
- 28 월드뷰가 만난 사람 영화 〈시선〉으로 19년 만에 돌아온 이장호 감독의 시선 _신효영

COLUMN

- 02 대표주관 기독교 미디어가 필요한 이유 _손봉호
- 38 일상대반사 고통, 분노, 저항 그리고 기억: 팽목항 바닷가와 시편 137편 _전성민
- 42 나의 믿음, 나의 작품 예술가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손가락이다 _손석

CULTURE

- 50 특집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 _신동식
- 56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46 서평 렘브란트의 하나님 _안용준

NEWS

57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대표주관 손봉호
- 발행인 김승욱
- 편집인 신효영
- 편집위원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 교정/교열 김선경
- 인턴기자 김소라
- 디자인 황정희
-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세계적인 미디어 학자인 미국의 클리포드 크리스천(Clifford G. Christians) 일리노이대학(UIUC) 명예교수가 내한하였다. 본지에서는 국민일보와 공동주관으로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이태형 소장의 인터뷰 진행과 총신대 신국원 교수의 통역으로 그를 만나보았다.



미디어 윤리학의 대가, 클리포드 크리스천 Clifford Christians

시대여, 진리로 진리를 소통하라

☛ 인터뷰어_이태형(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소장), 통역_신국원(총신대 교수)

클리포드 크리스천은 학부에서 고전어학을, 풀러신학교에서 인류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고, 남가주대학에서 언어학을 수학하였다. 1974년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동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16년간 일리노이가 자랑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이태형 소장(이하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 도 대체 '미디어'란 무엇입니까?

클리포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는, '미디어'하면 주로 출판되는 것들, 첫째는 신문, 그 다음은 잡지, 그리고 책들이었습니다. 이후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바뀌었구요. 즉, 저널리즘에서 브로드캐스팅으로, 브로드캐스팅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프로그램, 광고나 정치 연설, 담화를 쓰는 방법 등의 미디어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의 '미디어'에는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이 민주 정치의 핵심이기에 관련 학문들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윤리를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면 외에도 그것을 통해 정치적인 설득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판 미디어에서 방송 미디어로, 다시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관점의 확장된 미디어말입니다.

제가 미디어와 미디어 윤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 곧 진리를 어떻게 소통하느냐입니다. 영화나 신문, 음악, 무엇을 만들든지 중요한 것은 진리의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라면, 심미적으로 아름답기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리와의 소통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학 자체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다룰 수 있지만, 저는 미디어 윤리, 도덕 철학을 기초로 한 미디어의 방향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는 무엇인가. 언어를 통해 말하고 듣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근본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미디어는 만유를 존재하게 한 이 말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가 진리와 진실의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미디어를 통한 진실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소통이 침해당하고 있을 때, 미디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리포드: 그것이 미디어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에서는 항상 원리와 실천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관습이나 실천이 잘못되고 부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리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원리는 늘 살아있고 정당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미디어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고 부패하였다 해도 그것이 원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는 보존되고 존재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이기도 하구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기에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도 진리는 보존·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선지자적인 진리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될 때, 어떠한 삶으로 진리가 이루어지는지 선포하는 겁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미디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미디어 윤리를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종의 '모델링'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원리, 진리를 고수하며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 속에서 진리를 대변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언론, 기독교 미디어가 해야 할 기준이자 의무입니다.



이: 자크 엘룰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자크 엘룰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세상이라는 중력이 참 강합니다. 세상 속 미디어 현장에서 기독교 언론, 기독교 미디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클리포드: 여기서 엘룰을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자크 엘룰은 학계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진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특별히 그 연구 영역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오늘날 더없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에메스(Emeth)', 신약에서는 헬리어 '알레세이아(Alethei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숨겨지고 감춰진 것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드러낸다'에는 '사실을 드러낸다'와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디어가 정확하고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 기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 사실 너머의 진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Editor's Comment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자크 엘룰 | 박동열 역 | 대장간

신학자이자 철학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서양 사회의 흐름을 분석,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서양 사회 속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기독교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실존적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낸다.' 보도한다는 것에는 어떤 관점(perspective), 즉 한 사람의 세계관(worldview)이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전제가 되는 세계관이 다르면 많은 부분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 등 전달하는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관점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모든 방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의 다양한 영역에 미디어가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클리포드: 일반적으로 언론은 사실만 보도해야 하는데, 기독교적 관점이 필요한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독교 교육이 역사적으로 해 왔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의 경우도 120년 동안 이 문제, 즉 사실과 관점을 가르치는 것의 통합을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사실은 사실로, 관점은 사실 등의 관점 보도로 따로 넣는 것이 아닌 '통합'입니다.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객관적 사실을 오늘날의 철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사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따로 있고 거기에 관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실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도할 교육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분과주의에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관점을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합니다. (옆에 있는) 신국원 교수(총신대)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적 관점을 배우고자 학교에 옵니다. 총신대 같은 기독교학교에 기독교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relevance(접근 방법의 연관/적절성)”입니다. 이 측면에서 동성애를 보았을 때, 동성애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이지만, 저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또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상황을 봤을 때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약화됐기 때문에 신념은 있으나 미국 교회가 사회에 응답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힘이 약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널리즘에 있어 진리와 relevance라는 두 사실과 낱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클리포드:** 난제입니다. (웃음)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해왔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현실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물으셨는데, 특별히 동성애 같은 주제는 상당히 복잡해서 단순히 찬성/반대의 관점에서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다고 성경적인 원리를 유아무야할 수는 없고요, 전쟁을 선포

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원리에 의해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그 안의 실상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보도하고 다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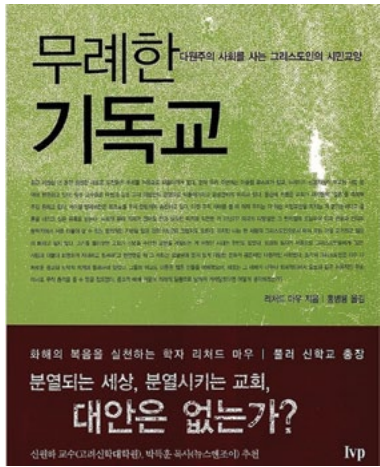
이: 신념과 시민교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마우의 저서 <무례한 기독교>(Uncommon Decency)의 신념 있는 시민교양(convicted civility)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클리포드: 현실적인 문제에 좋은 롤 모델을 세워놓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라이트 윤리(Green light, 녹색 등)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속대학인 일리노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기독교는 편을 가르고 정죄하여 무언가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식의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레드 라이트 윤리(Red light)에 사로잡혀 이것이나, 저것이나 편을 짓고 가차 없이 정죄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큰 결핍들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핵심은 정죄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늘 죄인으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이 되었던 학문이 되었던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세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요셉, 다니엘, 에스터입니다. 이들은 지혜와 갈등 조정능력 등이 탁월했고 리더십, 통찰력, 용기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왕에게도 존경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케이스였기에 더욱 흥미로운 예입니다. 특별히 멀티미디어 시대에 미디어가 주목하고 잘 드러내는 것이 싸움과 충돌,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미디어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현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지라도 평균적으로 잘 소화된 균형잡힌 입장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그린 라이트 윤리 방식입니다.

교인들이 기독교적 관점을 배우러 오는데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대들이 다룰 수 있는데, 대중을 상대로 한 신문의 경우라면 일반 대중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독자까지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일리노이대학은 일반 대중의 욕구도 알지만 미디어 자체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그 바탕이 인문 교육입니다. 지금 일리노이대학에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미디어계 사람들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은 자기영역은 잘 알지만 대중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미디어계에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또 미디어에 있는 분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바로 이런 자리가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
리처드 마우 | 홍병룡 역 | IVP
복음을 건지하면서도 세상 속의 기독교에 목소리를 높여온 학자 리처드 마우의 작품, 현대의 기독교가 가지는 과격한 십자군식 승리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탁월한 성찰이 담겨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독단성과 과격성을 벗어나 타인을 인정하며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0여 년 전과 오늘날의 영향력은 많이 다릅니다. 다각화된 다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클리포드: 인간의 본질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방식인 미디어가 변하면 인간 본질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년 전 제록스가 앞으로의 인쇄, 책의 미래에 대해 저명한 일곱 명의 박사를 투입하여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양질의 좋은 책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Quality books will exist forever).'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이라는 기술, 책을 묶고 페이지를 넘기는 기술만큼은 다른 어떤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양산업(dying industry)이지만 동일한 기술의 인쇄 미디어에 똑같이 적용, 인쇄 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질들은 존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들과 손자 세대가 신문을 읽는 형국은 아닙니다. 산업 투자 개념으로 볼 때 확실히 쇠퇴 일로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 종이매체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겠지요.

인: 크리스천 저널리스트들에게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클리포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은 기본이며, 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신실하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국원 교수님이 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것과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저널리스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구요.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는 세속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심지어 통치자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엇이 되었든 세상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통역으로 섬겨주신 신국원 교수님과 인터뷰어로 수고해주신 이태형 소장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인터뷰는 국민일보(2014년 4월 16일 보도)에 보도된 인터뷰와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클리포드 크리스천의 좌담 학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학문의 기로에 있는 이들에게

지난 4월 9일,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클리포드 크리스천과 그리스도인의 학자로서의 학문세계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한다.

소위 세속대학에서 공부하며 학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리스도인으로 학문적 세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대학에서 연구하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학문의 우수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대학은 사탄의 놀이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 싸웠던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 아브라함 카이퍼의 역할이 우리의 필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싸움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 속의 사도 바울, 에스더, 요셉, 다니엘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왕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기독교의 믿음과는 전제가 전혀 다른-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밖에 없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믿는- 세속적 자연주의가 팽배한 미디어 윤리학 속에서 제가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즉, 창조질서였습니다. 믿음이 다른 이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학문세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미디어 윤리학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이며 또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진리라는 개념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편적인 가능성으로 보는 보통의 지식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에메스(Emeth), 진실됨에 주목하면서 진리라는 것이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도덕적 실재라는 관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도덕적 실재론,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는 관점의 토대를 창조질서에 두고 나는 누구인가에서 논지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공통점이 있으며 주어진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미디어 윤리학의 시작입니다.

진리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이론이나 대응이론 등 얼마나 재현해 내는가를 강조하고 필요에 따라 구성해가는 것은 적절하

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실재적인 대안, 존재적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 진리, 인간으로서 주어진 공통적인 윤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근거한 기본진리야말로 우리가 세속 학문세계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전제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4대륙의 학자 13명이 모여 모든 인류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윤리의 잣대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본래 규범(모든 문화에 깔려있는 가장 첫 번째 규범)이 가능한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 속에서 기능하는 원초적인 기본 가치, 그것은 결국 '생명 존엄'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가 기독교 세계관과 같은 의미로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은 인간적인 대접의 황금률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며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디어 윤리학을 개발하게 된 저의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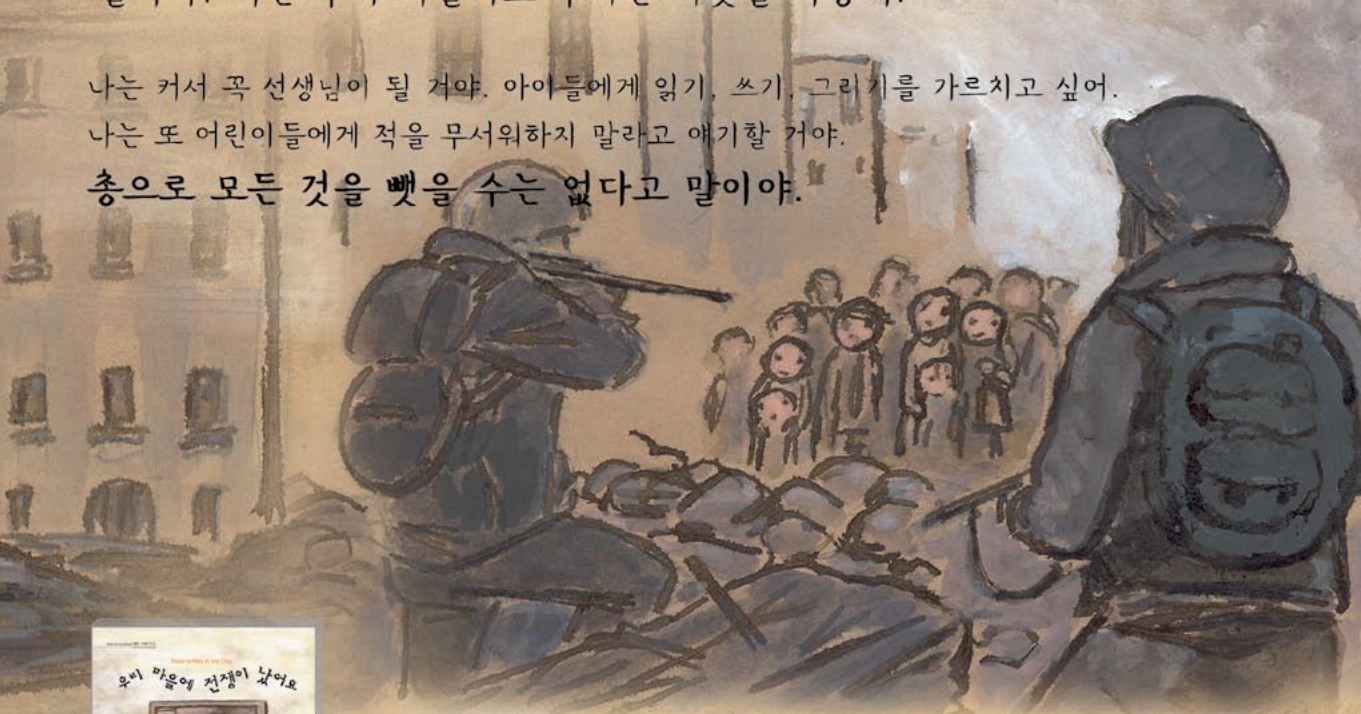
1980년, 대영박물관을 보며 (그곳 도서관에서 14년간 책을 파묻혀 살았다고 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란 책이 세상을 뒤집어 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형제로 서로를 돕는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이 지구 한 편에 살고 있을 점령지하에 사는 어린이들의 이야기

우리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은 너무 무서워.
 하지만 이 다음에 크면 나는 강해질 거야. 우리 가족 모두를 보호할 거야.
 나는 우리 마을을 지키고 적군들에게 말할 거야.
 “돌아가! 여긴 우리 마을이고 우리는 이곳을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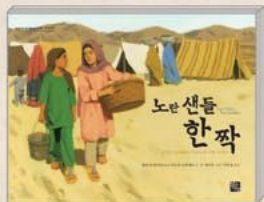
나는 커서 꼭 선생님이 될 거야.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그리기를 가르치고 싶어.
 나는 또 어린이들에게 적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야.
 총으로 모든 것을 뺏을 수는 없다고 말이야.



우리 마을에 전쟁이 났어요 파티마 사라패딘 글 | 클로드 K. 뤼부아 그림 | 정가 9,000원

『우리 마을에 전쟁이 났어요』는 전 세계적 이슈가 되어 있는 점령의 문제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어린이의 눈으로 점령군이 쳐들어온 상황을 그리고 있다. 전쟁은 이 소녀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놓았고 마음 속에 어떤 아픔과 슬픔을 남겨주었는지 답답하면서도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 맑은가람 테마동화책 평화이야기 시리즈 ◆



노란 샌들 한 짝
정가 9,000원



기억할게요
정가 8,000원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
정가 8,000원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정가 9,000원

WORLDVIEW SPECIAL



Media

: 영어의 media라는 단어는 medium의 복수형으로서 라틴어로 '중간의'를 나타내는 medius에서 유래되었으며, 매체 또는 수단으로서 어떤 의사나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매체 [media, 媒體]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당신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대중문화와 “진동의 신학”

〈서초교회 잔혹사〉와 〈아따, 참말이어〉 사이에서

☞ 추태화 (교육분과장,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I. 트로트 〈아따, 참말이어〉 논란

한 케이블방송이 주최한 트로트경연대회에 나온 노래 때문에 교계가 시끌벅적했다. 지난 3월이던가, 당시 미디어에는 댓글이 와글와글... 한쪽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가수는 의외로 신학대학원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감리교단에서 공부한 구자역 목사란 분이 바로 그였다. 그는 운동복 차림을 하고 등에는 '할렐루야'가 새겨져 있었는데, 부른 노래는 〈아따, 참말이어〉, 가사는 복음서를 압축해 놓은 거였다. 자막이 소개하기를 “이 분이 바로 세계 최초 하나님의 뽕짝 가수”라 했다. 가수 구자역의 노래는 미디어를 타고 강산을 흘러흘러 수많은 청중의 귓가에 맴돌았고, 이를 두고 좌중이 요란했던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기독교와 대중문화 사이에 하나의 스캔들이 되기에 충분했다. “복음과 뽕짝, 과연 불순한 만남인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비판가의 입담처럼, 거룩한 복음을 저속한 음악에 담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성, 예수께서 처절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보혈을 저급한 질그릇에 담는다는 발상, 그 자체로 이미 신성모독 아닌가? 어떤 독설가의 입을 빌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세속의 입술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만큼 모자라지 않다. 논쟁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하나님의 지고하신 거룩하심을 저속한 대중문화로 포장하지 말 것은 물론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불순한 발상은 떠올리지도 말라는 훈계였다. 이런 생각은 대중문화는 저속하다는 전제를 안고 있으며, 니버의 분석처럼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살고 있으며,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 세상 문화는 종말의 종말로 내달리고 있어서, 시대의 표적을 보자면 이미 종말의 막바지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표가 등장하고, 성도에 대한 유혹이 극한 상황에 이른 지금 어떤 증표를 더 요구한단 말인가. 그런 가운데 대중문화의 폐단 또한 적지 않으나, 낮은 곳에 처한 대중문화를 들어 높은 체 하는 자리와 사람들을 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없지 않으니, 이 자리에서 한번 논하고 지나야 할 사명감마저 느낀다.

II. 하나님의 역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한다. 그중 하나가 역설(paradox)이다. 역설은 스스로 모순되어 보이나 진실을 내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기이하다. 체험으로 이해하고 논리로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가령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산상수훈은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대라고 가르치신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역설하신다. 십자가는 치욕의 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역설 중 가장 극적인 역설은 어떤 것일까.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고뇌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안으로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오실까. 더구나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역설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골 2:2) 되는 과정은 곧 역설의 수용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설로 계시되었다.

역설의 논리를 아주 잘 담아낸 찬양이 있다.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찬양을 들여다 본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 보잘것없는 과부의 현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 일꾼들이 쓰다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 부끄럽게 하시네 / 이토록 놀라운 주의 나라 온 땅에 / 이토록 아름다운 주의 나라 온 땅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 맑음과 어둠, 낮음과 높음, 부요와 가난, 연약함과 강함, 거룩과 세속, 선과 악, 명예와 치욕 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가히 역설적으로 운용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하여 “우리 눈에 기이하다.”(마 21:42)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역설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진동이다.

III. 진동의 신학

구원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신다. 때로는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음성으로(욥 15:11),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계시로(출 3:2), 때로는 천지를 진동하십시오(출 19:18) 그 섭리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진동하심(Shaking of God)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요 그 역사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역사를 진동하실까.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동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무한한 능력을 보이시면 피조물인 천지는 진동할 수밖에 없다. 진동은 주님이 보이시는 영광 중 일부분이라 하겠다. 진동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또한 진동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심판을 결행하실 때 진동은 명확한 증거였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심으로 하늘이 물을 내리고, 땅이 갈라져 물을 쏟았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후 하나님의 진동하심으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을 삼키는 일이 벌어졌다. 진동하심이었다. 이스라엘이 패약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진동하셨다. 바벨론이나 앗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침략을 거꾸로 진동하심으로 활용하신다. 역사의 진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다.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진동하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제사에 대하여 노하심으로 백성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신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사 1:1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3)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의 영적 날씨를 분별하게 하는 잣대로 문화를 들 수 있겠다.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문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정욕을 만족케 하는데 분주한가. 종말 시대에 문화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될 것이며(롬 2:3-4), 이 진노는 필경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동반할 것이다.

IV. 쓰임받는 대중문화

그동안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독교계의 의견은 가혹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거룩과 세속의 결별을 외쳤던 교부 터툴리아누스와 같은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경우도 다르지 않다. ‘뽕짝으로 찬양을 부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을 다시 점검해 보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환상 중 부정한 것이 보자기에 싸여 내려왔고,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는 응답이 들렸다. 베드로는 곧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로 달려갔다. 그동안 대중문화의 폐단에 놀라 무조건 속되다 평하지는 않았는지. 혹 하나님께서 포스트포스트모던 시대에 대중문화를 쓰시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 21:3) 주께서 천대받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천대받는 대중문화를 쓰시겠다 하신 것은 아닐까. 주께서 뽕짝을 쓰시겠다 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복음은 뽕짝을 타고...

예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스러우셨지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냉엄하셨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행동하셨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부드러우셨지만, 스스로 고귀하다는 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13)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이중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 첫째는 본인들이 저질렀던 위선 그 자체요, 두 번째는 그런 행동을 통해 이웃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가식이었다. 여기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독교계의 일부 문제점을 잠깐 상기하고자 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기윤실 이 발표한 신뢰도 지수이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9.4%, 이는 한 종교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가치기준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이며, 타종교에 비해서도 낮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가려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행태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상은 교계에 대해 ‘너나 잘 하세요’라는 시니컬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출간된 책 한 권이 이런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초교회 잔혹사>(옥성호 저)이다. 이 소설은 인간의 조직으로 전락해버린 일부 대형 교회들이 바리새인의 성체처럼 역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알레고리 기법으로 읽자면 배꼽잡고 웃게 만드는 희화적 이야기이지만, 내심은 슬프고 우울하다.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선교 130년 청년기에 이런 질병에 걸리고 말았는가. 어떤 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 친위대가 만들어지고, 복음과 사랑의 원리는 어디가고 경영 행정, 조직관리 기법이 판치게 되었는지...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말세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버젓이 뿌리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다.

그동안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려 주셨다. 인내에 인내를 보이시면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다. 주님은 부요하다 자랑하는 교회에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 주님은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를 충분히 기다려 주셨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 주님은 그런 교회들이 내건 기독교 ‘고급문화’에 질리신 것은 아닐까. 너희들이 말하는 이른바 고급문화, 다 쓸데없다. 내 이름을 빙자해 자행한 그 많은 악행에 나는 배부르다. 너희의 휘황찬란한 십자가, 엄청난 건축비의 교회당, 거기에 어울리는 유명브랜드 주일 의상과 향수... 너희 그 잘난 고급문화는 충분히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기름진 고급문화를 사용하지 않겠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서 천대받으나 순진하게 구원에 목말라 하는 저 문화를 택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 세상에서 대중문화라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면 되니 문제될 것 없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antelao@hanmail.net)

어쩌면 하나님께서 문화를 진동하셔서 문화를 재편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따 참말이여>가 유치하고 저급한 문화라고 비웃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께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 판단으로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듯 교계가 자랑하는 고상한 고급문화를 이미 떠나신 것은 아닌지. 바벨탑을 해체하시듯 교회라는 우리 시대의 고층빌딩을 해체하시는 수순은 아닌지. 하나님의 진동은 교계에도 문화계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기존 문화를 해체하여 새로운 질서로 문화를 재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아닐까. 저급한 문화로 평가되는 뽕짝,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을 투입하려는 시도가 과연 낯설고 어설픈 ‘유치찬란’한 촌극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성구가 귀에 쟁쟁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마 21:1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40)¹⁾

구차의 목사가 부른 ‘뽕짝 복음송’,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거친 돌이 될지 몰라도, 이방인을 위하여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이의 섭리 안에서는 바리새적 문화를 진동하시는 문화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계속 뽕짝 복음송에 판지를 건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요 21:23). 내가 올 때까지 뽕짝 같은 대중문화를 들어 쓴다고 할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나. 그렇다. 만약 주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대중문화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1) <아따 참말이여>에 관한 신학 에세이는 류효준 교수의 글 “‘참말이여’ 유감” 참조.

큰 슬픔 속 “시민종교(civil religion)”의 징후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엄청난 슬픔에 빠졌다. 우리 개인과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물질주의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지불한 대가가 너무도 컸다. 특히 인간에게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자식을 먼저 보내는 상처를 집단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더 힘들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를 비롯한 관료, 정치권, 기업, 언론 등 모든 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시대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깊이 각인된 낙망과 불신이 가장 아프다.

사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벗어나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 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죄의 결과이다. 사랑보다는 가진 것이, 생명보다는 책임 회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이번 참사로 인한 비판과 회개의 대상에 교회와 우리 자신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이유다.

너무 아파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선 안 될 이 사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 가운데 이번 참사를 겪는 과정에서 미디어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언론인 “손석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성 언론에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손석희는 거의 유일한 호응의 대상이었다. 사고 후 수차례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으며, 그의 말과 행동, 심지어 방송에서 입은 옷차림까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그가 이번 과정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사고 당일 JTBC 기자가 생존 학생과 인터뷰 도중 저지른 치명적 실수를 사과하는 과정에서였다. 자칫 JTBC 보도부문 전체의 심각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상황이었지만 그의 사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이끄는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JTBC에만 인터뷰를 자청하기도 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문자와 동영상 등을 독점으로 제보하기도 하였다. “손석희 현상”이라 부를만하다. 그런데 이 손석희 현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속보성, 정확한 정보 전달, 비판기능 등에 대한 환호만은 아니었

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손석희에 반응했던 순간들은 형식적이거나 말뿐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사과멘트, 인터뷰 중 구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의 말에 얼마간 말을 잊지 못하던 장면, 학부모와 인터뷰 중 추가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자막이 나오자 “자막은 올리지 마시구요.”라던 즉흥적 주문, 매 시간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오프닝과 클로징 등이었다. 모두 저널리즘의 교과서적 가치와는 다른 측면들이었다. 사실 JTBC가 정보의 정확성에서 여러 오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석희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학자들은 위기나 재난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대중이 언론 혹은 언론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사제(priest)”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즉, 사람들은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이를 함께 헤쳐나가는 일종의 집단적 의례(ritual)를 집전할 뿐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생채기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이런 상황의 철학적, 나아가 종교적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에게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 이후 온 사회가 큰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리는 크지 않았다. 어느 종교지도자나 종교단체도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지 못했고 사실 대중의 정서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죄와 벌”이라는 단순논리로 비극과 희생을 재단하곤 했던 예전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에 안도할 따름이었다. 이렇게 볼 때 손석희 현상은 재난상황에서 사제로서의 언론을 향한 대중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집단적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존재를 손석희에게서 찾은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른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은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도 지나도록 생존자 구조소식이 들리지 않자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노란색 리본을 옷에 달거나 SNS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노란리본 모양으로 바꾸자

는 운동이었다. 처음엔 한 대학생 동아리가 만든 리본 샘플이 빠른 속도로 퍼지더니 곧 다양한 모양과 문구를 담은 리본들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오프라인 곳곳에서도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기원을 상징하며 나부끼게 되었다.

사실 이 노란리본 캠페인은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특히 너무나 어린 생명들이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집단적 기원에서는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기도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특정 종교의 형식과 내용을 정교하게 따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한 종교의 방식을 채용한다는 건 모두의 마음을 모으려는 취지를 거스르기 쉽다. 가급적이면 어느 종교와의 직, 간접적 관련성은 제거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초기에 일부 기독교인이 '종교 혼합주의'와 '주술행위'를 앞세워 신앙인의 동참을 반대한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공동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의례 세우기 위해 선 타인의 엄청난 고통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적 집단이라는 기존의 낙인을 재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캠페인의 유래를 밝히고 선부른 영적 해석을 경계한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해프닝에 그치기는 했지만,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정서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으면서 나타난 손석희 현상과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은 한국 사회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종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더 이상 제도종교가 전면에서 사회를 통제할 수 없는 정교분리가 규범화된 현대 세속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종교현상을 "시민종교(civil religion)"라 부른다. 시민종교는 세속사

회가 종교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제도종교와는 의도적인 거리를 두며 실천하는 종교적 의미의 행위나 의례를 말한다. 제도종교의 힘이 날로 약화되는 시점에, 특히 우리처럼 다종교와 세속주의가 매우 분명한 상황에서 시민종교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읽어내는 것이 왜 필요할까? 첫째, 세속적 가치와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종교적, 영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날로 위험은 더해져만 가고,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와 세계관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삶과 죽음, 고통과 희망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예언을 필요로 한다. 비록 대중은 미디어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필요를 확인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크다.

둘째, 이러한 영적 필요와 욕구를 드러내는 이 세상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러셨듯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소통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에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지했다. 단지 우리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고 정죄할 뿐이었다. 시민종교는 영적 필요와 욕구를 말하는 세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과 표현방식,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크게 아파하고 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박진우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영화의 르네상스는 오는가?

◎ 강진우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리얼리즘에서 판타지까지

2014년 부활절은 기독교영화로 둘러싸여 있었다. 북한지교회교회인들의 신앙과 고난의 현장을 담은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기독교영화계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지난 2월 13일 개봉하여 8주간 전국누적관객수 42만 명을 기록하며 기독교 영화가 그동안의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손익분기점을 30만 명으로 본다는 제작사측의 말을 고려한다면 40만 명을 훌쩍 넘긴 관객 수는 다음 영화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저예산영화인데다 기독교의 색채가 강한데에도 불구하고 40만 명을 넘긴 일은 한국기독교영화의 지속적인 제작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이 보낸 사람>은 영화관을 떠난 뒤에도 미처 영화를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개교회를 방문 상영하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신이 보낸 사람〉의 뒤를 이어 대런 애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화 〈노아〉(Noah)와 크리스토퍼 스펜서 감독의 〈선 오브 갓〉(Son of God)이 사순절 기간 중에 개봉되어 기독교계에 뜨거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노아〉의 경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감독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블록버스터 판타지로 본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성경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왜곡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교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개봉한 〈선 오브 갓〉은 〈노아〉와는 정반대의 화법을 구사한 전형적인 성서영화라 할 수 있다. 〈노아〉가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 〈선 오브 갓〉은 작가의 상상력을 최소화하여 성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전통적 방식의 성서에 충



실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려진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목격하는 일이란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성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부활주일을 목전에 두고 개봉한 이장호 감독의 〈시선〉은 이슬람 반군에 납치된 한국의 선교봉사단이 겪는 배교와 순교의 상황을 사실감 있게 묘사한 영화로 내용이나 감독의 명성 모두에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명작이다. 한국인 선교봉사단의 납치사건이란 교회의 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이란 점에서 인권을 다룬 시각을 중심으로 기독교신앙을 애둘러 표현할 만도 하지만 이장호 감독은 정공법을 택했다. 선교현장의 치부를 숨기지도 않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과감하게 드러냈다. 성서에 충실한 예수영화로부터 과도할 만큼의 상상력을 개입시킨 판타지,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선교봉사단이 처한 배교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형식 모두 다양하면서도 도전적인 영화들의 잇따른 개봉은 기독교영화의 부흥을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현실성 높은 드라마로 승부하다

지난 몇 년간 기독교영화의 주된 장르는 다큐멘터리였다. 2009년 신현원 감독의 〈소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블랙 가스펠〉에 이르기까지 극장에서 개봉된 기독교영화들은 하나같이 다큐멘터리였다. 다큐멘터리 장르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좋은 소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독교 안에서 비교적 제작이 용이한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카메라에 담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용, 세상을 향해서는 좋은 기독교 이미지를 형성하여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극영화로 갈 경우 다큐멘터리와는 비교될 안될 만큼의 세밀한 기획과 풍부한 제작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배우라는 한가지 조건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대중의 인지도가 높고 실력을 겸비하면서도 저예산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기독교신앙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연급의 연기자를 찾는 일이란 쉽지 않다. 그런데 〈신이 보낸 사람〉이나 〈시선〉 모두 김인권이냐 오광록 같은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풍부한 연기 경험을 갖춘 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선 점은 기독교 극영화의 재건을 가능케 만든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당면한 시사성 높은 소재를 택해서 이야기를 구성한 점은 유명 인물 중심이나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위주로 제작했던 이전의 기독교 극영화하고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김진우 감독의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경우 북한의 지하교회를 다루면서 신앙과 인권문제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산 속 동굴에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독교 영화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탈북하다 잡혀 처형당한 시체들이 얼어붙은 강가에 뒹굴며 기독교인과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은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장호 감독의 〈시선〉은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봉사단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일본의 역사소설가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오는 배교에 대한 신앙인의 갈등을 접목시킨 영화다. 줄거리는 한국인 선교봉사단의 납치상황을 토대로 진행되지만, 주제는 〈침묵〉에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 배교하는 신부에 대한 신앙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

통역을 겸한 현지 선교사 조요한(오광록)은 목사와 장로부부 그리고 네

명의 남녀로 이루어진 선교봉사단의 안내를 받고 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오지에서 이슬람 반군에 의해 납치되자 죽음의 위협 앞에 선교단원들의 실상과 신앙은 그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유 장로(故 박용식)는 함께 동행한 자신의 부인 송 권사(김민경)에게 평생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행세를 해왔음이 밝혀지고 송 권사는 선교여행이 끝나는데로 한국에 돌아가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선교단원과 바람을 피워 임신까지 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납치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화는 현지 선교사 조요한의 과거와 현재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겉으로는 선교사지만 그는 한국에서 온 선교단을 인솔하며 현지식당에서 커미션을 받는 등 적당히 뒷돈을 챙기는데 주저하지 않는 세속적 인물이다. 더군다나 납치 상황에서 그가 이전에 이슬람 반군에 잡힌 경험이 있었고 나아가 기독교를 부인하는 배교자였음이 드러난다.

흔히 기독교영화가 교인들의 좋은 모습만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감독의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사회비판과 풍자의 날카로움이 기독교영화 안에서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다.

신앙인에게 도전을 주다

북한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선교영화를 지켜보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혹은 내가 배교와 순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위협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신이 보낸 사람>과 <시선>이 기독교영화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 관객들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까닭이다.

북한지하교회의 경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 수용소로 보내져서 잔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숨죽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지만, 감시의 시선을 피해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습관화되어 아무런 감동도 없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중국과 인접한 두만강 국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 끝에 아내를 잃은 주인공 철호(김인권)는 중국 공안을 피해 골동품을 판 돈으로 자신이 속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탈북시켜 남한으로 갈 계획을 세운다. 그의 마음에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깊이 박혀 있다. 그러나 지하교회 교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끝내 국경수비대에 기독교인이란 것이 발각되면서 철호 역시 아내를 따라 순교의 길을 뒤따르고 만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 관객이 극장 문을 나설 때 컷가를 맴도는 질문은 영화 속 대사처럼 “남한은 과연 가나안 땅인가”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과 같은 것인가? 우리 중 그 누구도 북한의 지하교인들의 바람대로 남한 땅은 것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천박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돈과 권력의 이상화에 빠져버린 교회 생각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시선>은 세 가지의 신앙 모습을 통해 탈레반에게 납치된 선교단원의 특수성이 아무런 위협도 없이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앙적 깨달음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위기와 배교의 신앙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상황처럼 배교를 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위기의 신앙을 말한다. 이슬람 반군이 요구한대로 그들의 지도자가 석방되지 않자 이들은 납치한 교인들을 차례대로 처형하려 한다. 다른 교인을 위해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는 구목사(남동하)의 모습은 아름답다. 목사라고 해서 남을 위해 죽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배교를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기로 다짐한 우리들이지만 삶의 위기를 핑계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가슴이 뜨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은혜와 구속의 신앙이다.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결심한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 행하는 배교다. 앞의 배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배교는 철저히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잃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감독은 이를 ‘거룩한 배교’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소설 <침묵>에서 일본 선교사로 온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 관원의 어떠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배교를 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결국 배교를 하고 만다. 이때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배교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신부의 배교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암묵적 의지라는 해석에 이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 도달한다. 조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환상가운데서 믿음을 되찾고 배교와 순교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

셋째는 용서와 사랑의 신앙이다. 이 영화의 백미이자 조금 더 세밀한 묘사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조요한은 반군의 소년병에게 약속한 대로 앞을 못 보는 어린 여자아이를 한국에 데려가 치료해줄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다. 그리고 그 일이 실행되는 뉘앙스를 풍기며 영화는 끝난다. 일행을 죽음과 고통 속에 빠뜨린 부족의 아이에게 빛을 선물하려는 선교단원의 모습에서 이장호 감독은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19년 만에 만든 영화 속에는 감독의 인생과 신앙이 사랑과 용서라는 메시지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영화의 과제

오늘날 기독교영화계의 현실은 기독교영화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아무리 예술성을 갖춘 훌륭한 기독교 영화가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되고 상영될 극장이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영화 소비자로서의 관객을 만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 극장의 경우 메이저 영화사에서 제작한 오락

성이 강한 영화가 아니라면 스크린을 전폭적으로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이 내린 사람>이나 <시선> 심지어 <선 오브 갓> 역시 전국적인 배급이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일반 영화에 비해 극히 소수의 극장에서만 상영되었고, 그나마도 연속 상영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소위 ‘퐁당 퐁당 상영’이라고 말하는 건너뛰기 시간표를 배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영화만의 일은 아니다. 저예산영화나 독립영화 혹은 예술영화들도 같은 설움을 겪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미래의 소망은 밝은 편이다. 영화를 통한 문화사역에 꿈을 가진 사역자들이 기독교영화를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극장은 부활절을 전후로 4월 10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The Bless of God Film Festival(서울극장 기독교 영화 기획전)’을 개최했다. 뮤지컬 공연실황을 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비롯해서 앞에서 언급한 주요 기독교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독교 영화들이 상영관을 얻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 극장주의 문화선교를 향한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5월 22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1회 국제사랑영화제 역시 최근 개봉된 기독교영화들을 포함해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외국의 기독교영화들과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단편기독교영화들이 상영된다. 기독교 영화의 연이은 개봉에 이어서 이를 기독교문화의 확산으로 연계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나타난 것 또한 한국기독교영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서 보는 일만 남았다.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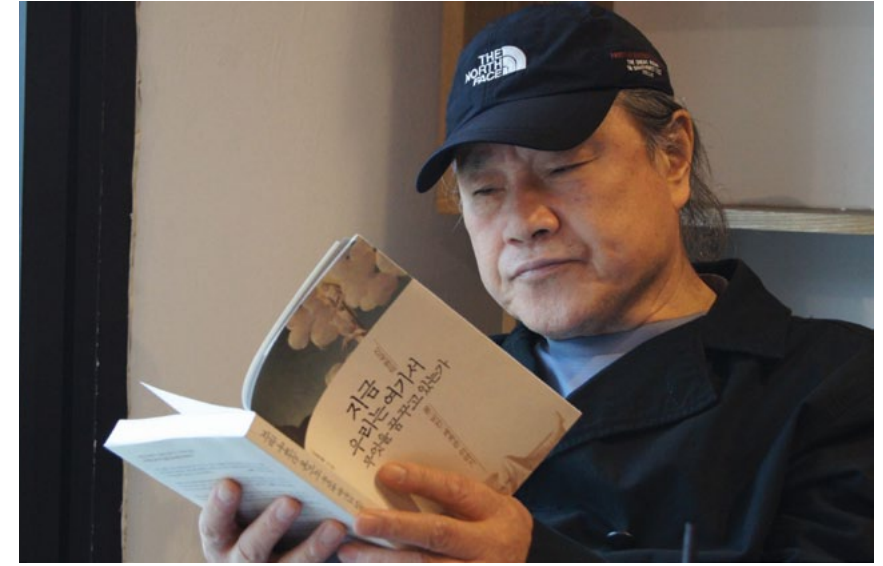
이제는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가 편안하다는 이장호 장로, 무려 19년의 공백을 깨고 그의 스무번째 영화 <시선>으로 돌아왔다. 한국의 기독교 극영화는 1948년 <죄없는 죄인>을 시작으로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의 제작되지 못하다가 2010년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인 <회복>, <소명>, <울지마, 톤즈>, 올해 <아유레디>, <블랙 가스펠> 등이 기독교 영화의 맥을 잇고 있었다. 극장가에 기독교 영화가 연일 상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이.장.호를 만나다.



영화 <시선>으로 19년 만에 돌아온 이장호 감독의 시선

☞ 인터뷰어_신효영(본지 편집장), 사진_김소라(기자)

최근 개봉된 기독교영화들에 대한 이장호 감독의 시선
최근에 본 영화는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기독교 영화중에서 북한의 기독교를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는 지금까지 없었고, 영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길에 선 사람으로 외로운 작업을 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김진무 감독을 만나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며 악수하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또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을 보며 기독교 영화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스무 편의 장편영화, 그리고 시선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영화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시선>이죠.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전에 만들었던 이전의 영화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시선>은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람을 본다는 것을 깨달은 후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들 작품은 조금은 다른 영화가 될 것이다.”

2010년도 즈음 한 인터뷰에서

그랬었죠. 그때 뭔가 준비를 했죠. 그런데 쉽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흥행이라는 유혹은 견디기 힘듭니다.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꾸 피하게 되지요. 아마 요나처럼,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심정일 겁니다.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있었습니다. 27년. 전성기가 끝나고 만드는 영화마다 실패하고, 교통사고 나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들의 전성기를 보며 상처받고... 밑바닥에 떨어지니 ‘나는 되는 게 없는 놈이구나.’, ‘나는 비참한 놈이다.’,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안 된다.’, ‘나는 무능한 놈이다.’, ‘아무것도 못 한다.’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절망의 끝에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각,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로마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개: 오늘의 영화 <시선>

영화 <시선>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당해 죽음의 문 앞에 선 봉사단원들의 내면을 통해 종교인의 믿음에 대한 본질,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진다.

4년의 공백, 19년의 공백

70년대 말 그때도 4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데, 저는 영화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사실주의적 표현을 해야 한다, 현실에 뿌리를 뒤야 한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의 공백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영화들은 돈이나 명예로 저를 살리는 영화였고 <시선>은 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관객의 영혼을 살리는, 관객을 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에게 <시선>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감각과 시대정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영혼이 없는 영화였어요.

한국영화 100선에

4편의 작품을 올린 감독, 한국의 리얼리즘 영화의 효시, 교회를 향한 그의 리얼리즘
 신앙이라는 건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를 뺀 모든 삶,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빼놓은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만약에 크리스천 대통령이라든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아마 정부 부처에 '영혼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영혼을 몰랐을 때의 차선택이었구요. 교회에 대한 저의 인식이라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개혁, 또 개혁이 필요하듯이 올바른 교회라면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비판은 그런 것을 올바르게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를 뺀 모든 삶,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빼놓은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오히려 불편한 영화 도입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예요.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교황청에서 배교를 한 신부를 파문시킨 것까지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걸 넘어서 이 신부가 그대로 일본에 남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계속 자기 신념대로 가톨릭을 전파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개: 엔도 슈사쿠 <침묵>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던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신부의 선교와 곧 이은 배교(背教) 소식, 그 배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잠복한 제자 신부가 겪는 고난과 갈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죽어 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순교, 타인을 위한 배교, 거룩한 배교의 삶?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이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타심이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속 중요한 선교사 같은 경우 배교도 했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오히려 돈을 목적으로 가이드하는 선교사로 살죠. 그러나 다시금 회복되어 순교의 길을 택하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순교와 거룩한 배교,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침묵>에 보면 바닥에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지 않으면 처형을 합니다. 로드리고라는 신부님이 밟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을 때, 예수님이 '밟아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밟히러 왔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밟지 않으셨을까요?





영화 속 여인

크쥐시토프 키에슬로브스키의 연작 영화 <십계>를 보면 에피소드마다 한 침울한 사람이 사건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음이 깨져서 사람이 연못에 빠져죽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는 남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묘한 감흥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우리를 보는 시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 우리가 혼자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故) 박용식 집사님의 소천

같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났지만, 앞으로 많은 영화를 같이 하겠구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애정이 특별했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마치 순교 같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 부인으로부터 출석하는 교회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헌신하라는 말씀을 듣고 영화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작비가 적어서 출연료를 많이 줄 수 없었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결심한 거예요. 나중에 부인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기한 작품이 기독교 영화인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굳이 기독교, 교회가 들어가야 기독교영화일까

기독교영화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만, 저의 주제는 이타심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 이번 영화는 소재가 선교단체이지만 앞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 겁니다. 아마도 매우 좁은 길일 겁니다. 더 어렵고 더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만들만한 감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운철 감독, 이명세 감독, 배창호 감독 등 모두 크리스천이예요. 이 친구들에게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유가 주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의 자유, 금전의 자유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제작비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족들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니 얼른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풍토가 자라나면 후배 감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영화가 발전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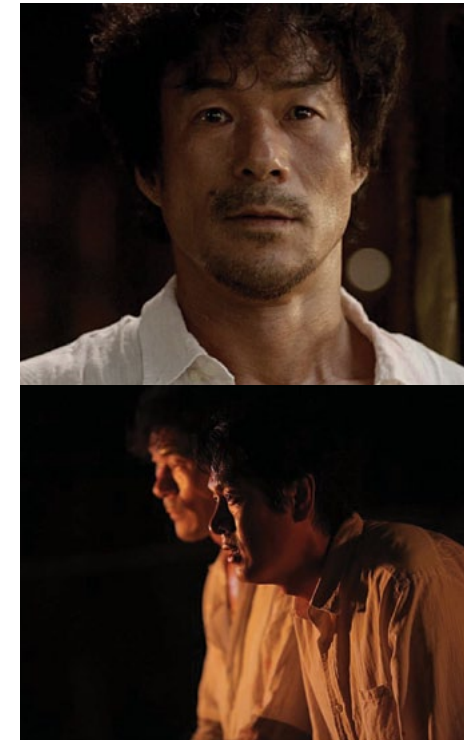
많은 기독교 영화제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영화제가 서울뿐 아니라 투어 형태로 지방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교회가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독교 영화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다보면 원래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영화인에게, 관객에게, 그리고 나의 세대에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인문적 소양입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든지 인문적 소양이 기초가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오디오, 비디오에만 익숙하게 자라서 세상에 대한 표현과 리얼리즘에 대한 기초가 없습니다. 현실에 텍스트를 뒤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테크닉이 아무리 좋아도 철학이 없으니 작품에 투영할 수 있는 눈도 없지요.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학생의 단편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정신을 담으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비속어를 사용하면 현대감각이 있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요즘 젊은 세대가 빠지기 쉬운 테크닉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딸의 이야기에요. 그런데 사형수에게 계속 거칠게 욕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해요. 착잡하더라고요. 비속어는 생활언어잖아요. 그 생활언어의 과잉 사용으로 욕을 쓸 수 있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분하지 못해 캐릭터를 평면적으로 만드는 등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영화 환경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돈만 보는 환경입니다. 기독교 영화인에게 꼭 하고픈 말은 그겁니다. 작품은 희생이 있어야 해요. 작가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구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비극입니다. 상업영화를 보면서



재미만을 추구하는 관객은 영화 너머 그런 재미만을 양산하는 영화 제작자를 봐야 해요. 영화를 공급하는 공급자나 소비자나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질적인 영화를 볼 수 있는 관객도 없어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 환경.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이어지니까요. 19세기 말부터 인류는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단절됐어요. SF시대의 포스트모던 때문인

지, 아이들은 태어나서 말과 글을 배우기도 전에 엄청난 시청각훈련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린 아이가 TV에서 CM송만 나오면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뉴스가 나올 때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CF만 나오면 관심을 가져요. CF의 특징이 컷이 수없이 바뀌면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험란한 것에 시선을 빼앗긴다고요. 그렇게 거듭하는 동안 이 아이는 일종의 비디오의 특수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세대 어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엔 오디오 훈련을 해요. 공부할 때 교과서 놓고 집중해야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하잖아요. 이것 역시 특수한 오디오 훈련입니다. 우리는 성장소설, 교양소설, 고전 문학 등을 읽으면서 성장했는데 이 아이들은 오디오와 비디오만 가지고 특정하게 SF적 지능이 갖춰졌다고요. 지금까지의 인류와 달라진 거예요. 2천 년 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의 끊어진 맥을 이어가려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시험에 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울했어요.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에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활마저도 의심스럽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그때,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외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자.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자 다짐했습니다.”



일흔이 넘는 거장의 작은 다짐이 다음 세대에게 가져올 소망의 고리로 반짝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장호 감독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이장호 감독 소개
FILMOGRAPHY

- 《별들의 고향》(1974) 연출 / Heavenly homecoming to star
-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연출 / Good Windy Day
- 《어둠의 자식들》(1981) 연출 / Children of Darkness
- 《낮은 데로 임하소서》(1981) 연출 / Come Down to a Lower Place
- 《바보 선언》(1983) 연출 / Declaration of Idiot
- 《무릎과 무릎사이》(1984) 연출 / Between the Knees
- 《어우동》(1985) 연출 / Eoh Wu-dong
- 《이장호의 외국인구단》(1986) 연출 / Lee Jang-ho's Baseball Team
-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1987) 연출 / A Wanderer Never Stops on the Road
- 《명자 아끼고 쏘냐》(1992) 연출 / Myong-Ja Akiko Sonia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날 선 질문을 던지는
영화 시선



MOVIE INFORMATION

제작 : 크로스픽처스㈜
기획 : 김현우
감독 : 이장호
주연 : 오광록, 남동하, 박용식
장르 : 휴먼 드라마
수상내역 : 영화진흥위원회 마스터영화 제작 지원 선정작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초청작

PROLOGUE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세계관은 심각한 도전에 처하게 된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시선>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 당해 죽음의 문 앞에 선 봉사단원들의 내면을 통해 종교인의 믿음에 대한 본질,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진다.

과연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의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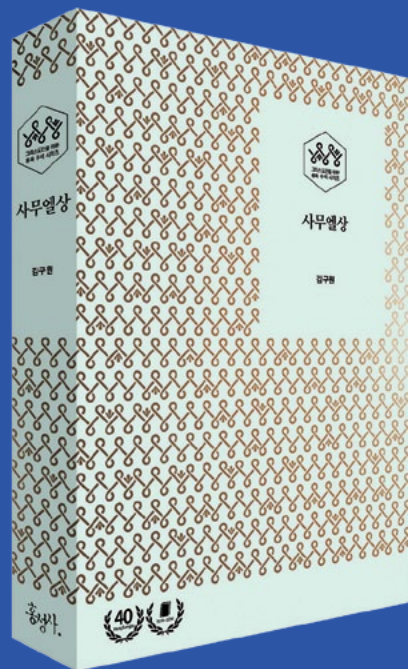
우리의 질문을 던지고 풀어가는,
한국형 주석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김구원

A5변형 | 652면 | 20,000원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는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 독자들을 위해 집필합니다.

<http://www.hsbooks.com>

홍서사.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일상다반사
고통, 분노, 저항 그리고 기억:
팽목항 바닷가와 시편 137편

나의 믿음, 나의 작품
예술가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손가락이다

※ 본 칼럼은 격월로 연재됩니다.

고통, 분노, 저항 그리고 기억: 팽목항 바닷가와 시편 137편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이 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처음 쓰는 글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나의 글과 소식을 나누기를 즐겨했지만, 그 날 이후 나는 페이스북을 멈추었다. 노란 리본을 프로필 사진에 달고 올라오는 소식들 앞에 할 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00여명의 목숨을 삼킨 팽목항 바다, 그 옆에 주저앉은 가족들의 울음 앞에 나의 일상은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 137:1-2). 시편 137편도 물가에서 우는 울음으로 시작한다. 이 시편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울음이 시온의 노래를 대신한다. 바벨론 강변 또한, 팽목항의 바다 처럼 울음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평소에 수금으로 반주하며 불렀던 시온의 노래를 멈출 수 밖에 없던 곳이 바벨론의 강가였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기쁘게 찬양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타향에 포로로 잡혀 왔을 때, 그들에게 울음 외에는 다른 소리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주검이 된 자녀라도 다시 만나 보듬고 싶은 부모들이 주저앉은 진도 팽목항도 그랬다.

“우리가 …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 137:1). 바벨론 강가에 있던 포로들은 시온을 기억할 때 더 목이 메었다. 예전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기억할 때면 울음은 더 깊어졌다. 한 가족이 소박하지만 짝찬 행복을 누렸던 시절을 기억할 때면, 삼겹살을 좋아했다는 예은이를 기억할 때면, 아들에게 브랜드 옷을 사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기억할 때면, 마지막으로 남겨준 동영상을 보며 수현이를 기억할 때면, 팽목항의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우리도 통분만이 목에 차올랐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시 137:3-4). 노래를 멈추어야 했던 것은 울음이 노래를 삼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포로된 땅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찬양이 조롱이 되는 장소, 그곳이 바벨론 강가였고, 팽목항 바다였다. 애통하는 사람들과 진정 함께 한다면 우리도 노래를 멈추어야 했다. 무엇보다 “설교질”을 멈추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

앞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그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 되었다. 금을 밟지 않고 송곳같이 옴의 고통을 설명했던 친구들의 정통 신학을 하나님은 옳지 않았다고 판정하셨다(욘 42:7). 그렇기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 역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거는 것 뿐이었다. 그렇지 않은 평온의 말은 이방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처럼 오히려 우리 신앙을 조롱거리고 만들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시 137:5-6). 그러나 말을 멈추는 것과 시온의 노래를 그치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말문이 막힐 뿐이었다. 바벨론 강가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했지만 예루살렘을 노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잊을 수는 없었다. 포로의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던 처절함도 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어느새 이제는 “시온의 노래”를 다시 부를만하다고 재촉하기 시작한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보채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간 일상에서도 기억해야만 한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혀 죽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 목숨을 걸고 말할 만큼 이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잊을 수 없다. 잊지 않겠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던 에돔 자손을 기억하소서” (시 137:7, 사역).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른다. 그런데 그 말엔 분함의 숨이 있다. 에돔은 유다 자손의 형제였지만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며 재앙을 방관했다. 심지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한패였다(욘 1:10-12).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던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옆에서 방관하며 조롱의 막말들을

뱉었던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기억을 호출한다. 지난 4월부터 우리 땅에도 남은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자들을 육보이는 막말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여, 그들의 말을 기억하소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 137:8-9). 여호와께 에돔의 막말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던 바벨론 강가의 포로들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축복”을 말한다. 자신들을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집어 던질 자를 축복한다. (여기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표현은 시편 1편에서 사용된 표현과 같다.) 이 구절은 그 잔혹함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혹케 한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해보기도 하고(사 13:16, 14:21-22 참고),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말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거부했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불을 내려 멸망시킬까 물어보자 그들을 꾸짖으셨고(눅 9:53-55),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마 5:44). 그러면 이 시편의 잔혹한 축복은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저 “미개한” 소리란 말인가. 그렇다면 “저들도 네가 있는 바다에 애원하고 절규할 때까지 빠뜨려 버리고 싶다”는 애비의 심정 또한 자녀를 잃은 슬픔에 “강파가 되어버리 미개인”의 심정이란 말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 속에 사람의 생사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 137:8). 성경의 가장 잔혹한 축복은 사실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이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행할 잔혹한 행동이 나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아.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왕하 8:12; 호 10:14, 13:16; 나훎 3:10 참고). 이러한 구절들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며 이스라엘 부모들이 겪었을 끔찍한 일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바위에 매어짐을 당했던 것이다. 시편 137편의 마지막 외침은 그렇게 자녀를 잃은 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갈구하며 그것을 이루는 자에 대한 축복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잔혹한 축복이 권력자가 아니라 희생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저 이렇게라도 목놓아 울며 외치지 않으면 죽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정의를 바라는 처절한 갈구요,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한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라는 호소다. 성경은 바벨론 강가에서 외쳤던 이런 호소를 묵살하지 않고 생생하게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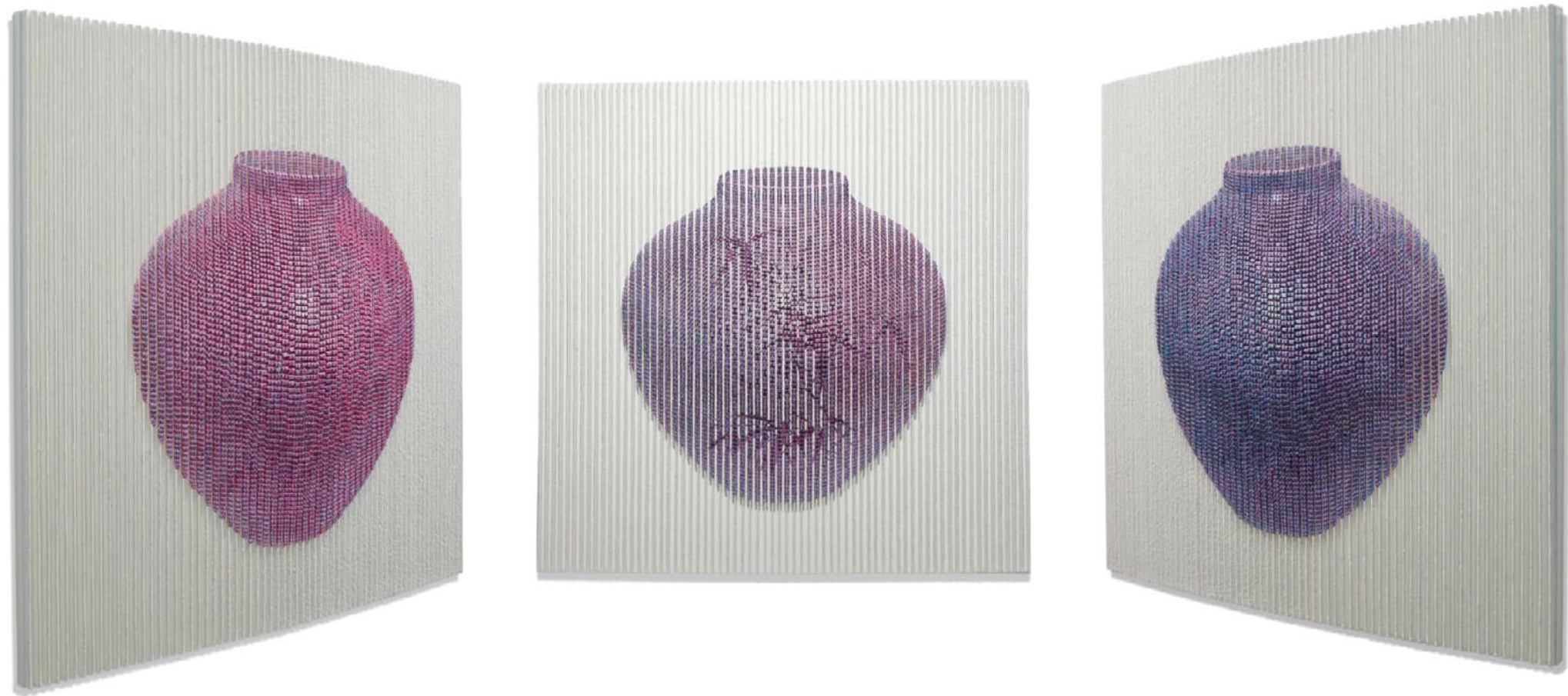
사실 또 다른 시편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자를 해하려 했던 자를 향한 엄청난 저주가 나온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와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시 109:8-16). 이 시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하게 마음이 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하게 마음이 상했던 자들에게 이 시편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서 계심을 경험하는 위로의 노래일 것이다.



전성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B.Sc.), 캐나다 리젠티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을 (M.C.S., Th.M.),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구약학을(D.Phil.)에서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를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출판하였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들을 하고 있다.

삶에는 여러 종류의 고통이 찾아온다. 그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부당한 고통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벌을 달게 받으려만, 착하게만 살았던 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견디기 힘들다. 이 글을 원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관찰자나 평가자가 되어 답할 수 없다. J.I.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길 옆에 발코니에 있는 사람과 길을 직접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한다. 세상의 악에 대해 발코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저런 논의를 하겠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직접 경험하는 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이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말을 잃어버리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들 사이에 사람으로 보내신 비밀의 빛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함께 고통한다. 함께 분노한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함께 저항한다. 무고한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리고 기억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는 자를 조롱하는 말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의 압제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평목향 바닷가를 생각하며 시편 137편을 읽는다. 그리고 불의한 고통 속에 하나님이 세우실 정의를 다시금 갈망한다. “우리가 평목향 바다 거기에 앉아서 단원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딸...아...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술가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손가락이다

손석 (작가)

나는 작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지향한다.

현대 문명의 중심세력은 눈에 보이거나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을 관심에 두며, 보이지 않는 마음상태의 변화나 다른 영적인 현상은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과 그의 삶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감각에 인식되고 측정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무시한다면, 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측면을 잃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무신론적 유물론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로새서 1:16)다고 말하며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

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웅장한 대우주, 아름다운 꽃과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 속의 고기들, 철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산천초목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조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자연계뿐 아니라 예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술행위를 하는 예술가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름다움을 선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선한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이며,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생각할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기에 예술작품의 창작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작품의 방법론과 그 테크닉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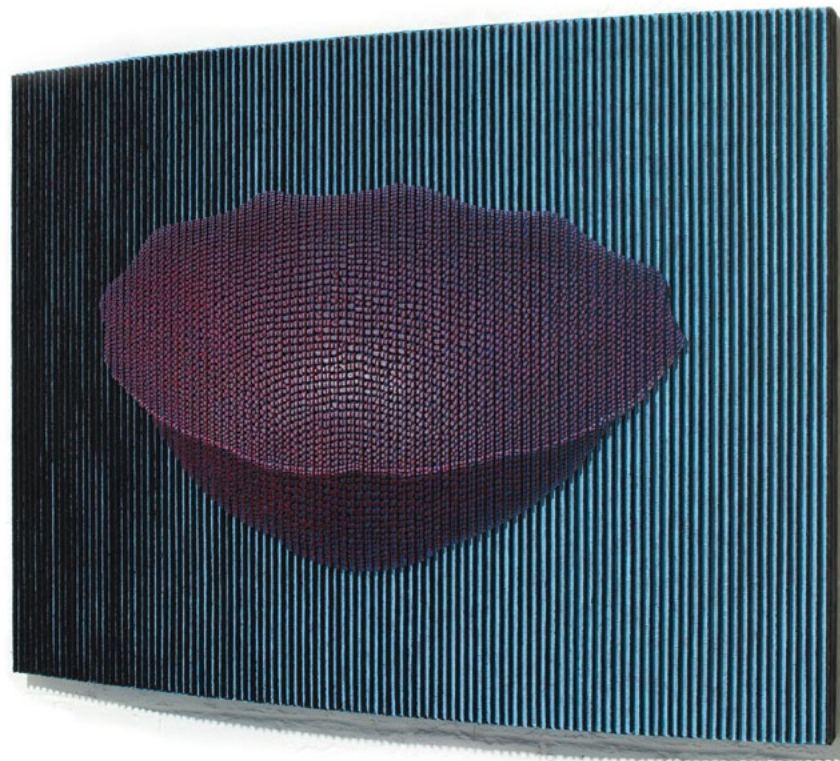
사람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듯,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빚어진 하나님의 예술가로서 나의 존재는 물론 나의 모든 작품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하나의 지표(index)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이 아닌 태양을 주목하듯, 나는 나의 모든 작품과 활동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나의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통해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의 창작활동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 원한다.

나는 나의 모든 예술활동의 결과물들이 협소하고 타락한 나의 내면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지시체(index)가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만한 선한 것이 없다.

따라서 나의 작품 활동에 있어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서는 일상적인 삶은 물론 예술적 표현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술은 예술가의 깊은 영성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술가에게 성령님의 영광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깊으시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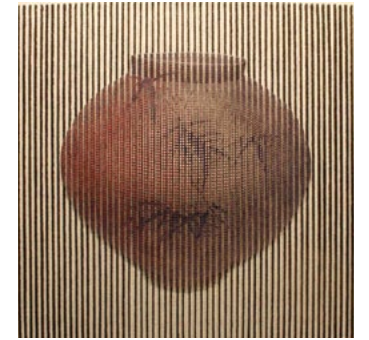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하다보면, 종종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주저 없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파리의 예술 풍토는 무신론과 이신론에 기초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대답을 이상하고 신기해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그들이 제작하는 작품들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한다.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들의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며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일할 뿐이다.

우리는 예술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보편적 인류 역사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슬하게 보아왔다.

원래 예술에는 인간의 죄악 됨을 밝혀내고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기독교 예술가는 이 죄 많고 타락한 모순된 세계의 체계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들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억압된 우리의 현실 상황에 위로를 주며 타락한 인간과 세상에 대항하여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과 영적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타인과 함께 나누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프랑스 북부의 브루타뉴 해변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홀로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나의 예술가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름답고 선하게 지어졌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초의 판단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미적 판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중 오직 타락한 인간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 역시 오직 나와 내 가족 중심, 이 땅에서 좀 더 풍족하고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행복을 쟁취하고 예술마저도 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저급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나의 예술가로서의 사명은 나의 예술활동을 통해 창조주 되시며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예술 작품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다. 작가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다.



손석 1995년 이후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 홍익대 미대 졸업 후 파리8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작품활동으로는 개인전으로는 2013 마젤갤러리 초대전(브뤼셀, 벨기에), 2011 가나아트센터 초대전(서울), 마젤갤러리 초대전(브뤼셀, 벨기에), 2009 홍익서울옥션 개인초대전(홍익), 2007 갤러리 가나보브르그(파리, 프랑스), 인사아트센터 초대전(서울), 2002 파슨스 파리(파리), 2001 에스파스 아르세날(아시레올리노, 프랑스)이 있고, 단체전으로는 2014 백자예천(서울미술관), 2013 가나화랑 창립 30주년 전속작가전(가나화랑, 서울) 등이 있다.

빛으로 세상을 품은 성경 이야기

렘브란트의 하나님

안용준

『렘브란트의 하나님』은 세상을 안을 만큼 가슴이 넓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빛과 생명을 공급하기에 소홀함이 없다.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성경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포용하며, 그 안에서 창안된 예술의 가능성과 풍부함을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조분석을 통해 그 세계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신학적 조형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렘브란트 활동 당시 유럽의 화가들에게 성경 그림은 한물간 시대의 흔적이었다. 찾는 이가 별로 없기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시 되던 때였다. 얼핏 보면 렘브란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생전에 유화 160점, 동판화 80점, 드로잉 160점 등 850여 점이나 되는 성경 그림을 제작하였다. 그는 당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세대를 변화시킬 만한 사명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술과 미학을 전개한다.

저자인 안재경 목사는 렘브란트의 예술과 미학에 나타난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한다. 그는 <스테반의 순교>에서 <탕자의 귀환>에 이르는 12점의 유화와 동판화를 선보이며 신구약 전권을 묘사한 렘브란트 예술의 요체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렘브란트 예술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곧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고 고양시킨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생명력 넘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미적(美的) 공간을 꾸미셨다. 이것은 공허한 세상을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는 창조적 행위였다. 『렘브란트의 하나님』 역시 생명의 공간 안으로 초대된 빛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며 인간의 영혼을 드러내는 근원임을 선명히 한다.

가만히 살펴보자. 저자는 <스테반의 순교>에서 빛이 화면의 위로부터 사선으로 가르며 스테반의 얼굴에 투영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손을 치켜들고 하늘

을 우러러 보는 스테반의 빛나는 얼굴은 예수님을 연상시킨다. 예수님이 고초 당하시며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말이다. <논쟁하는 두 노인>에서의 빛은 이미 자연의 한계를 넘어 은혜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빛의 은총과 자비로움은 이 책에 면면히 흐르는 핵과 같다. 결국 <탕자의 귀환>에서 절정에 이른다. 한때 세속적인 위안과 쾌락에 빠졌던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얼굴에는 공허와 사랑이 묻어나고 초월적인 빛으로 물든 모습이다.

우리가 렘브란트의 예술적 공간으로 초대되어 누리는 것이야말로 바랄만한 미학적 활동이 된다. 이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에서 빛의 은총은 단지 미학적 활동을 위한 그림 해석의 중요 도구로만 머물지 않는다.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선포하며 가톨릭의 전통 권위에 저항하는 교회의 갱신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사상에 의한 교회의 갱신운동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렘브란트도 종교개혁에 동력을 제공한 기독교인문주의에 동의하고 있다. 기독교인문주의 학풍의 학문적 감화가 그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환경으로 몰아넣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백 길더 판화>에는 루터와도 교류한 바 있던 대표적인 인문주의 학자 에라스무스

안재경 저 | 홍성사



(Desiderius Erasmus, 1467?-1536)가 등장한다. “원래 자료들로”(ad fontes)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인문주의의 강조는 성경 연구에 있어 주석서들보다 성경 자체가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시켰다. 이것은 원어로 인쇄된 성경 본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1516년 에라스무스 신약성경 등이 그 예이다. 렘브란트는 에라스무스와 로이힐린 등 성경적 인문주의자(biblical humanists)들이야말로 성경과 관계된 교부들의 문서를 원어로 공부했으므로 성경 주해 방법의 한계와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렘브란트의 성경에 대한 인식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성경의 계시에 대한 균형 있는 예술

적 시각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의 한계를 엄청나게 늘려 놓았다.

이 책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과 교회의 모습을 제안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데 있다. 렘브란트가 그토록 애정을 보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고백과 전통이 현대 교회 문제의 어려운 실마리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렘브란트의 생애 마지막 자화상 가운데 하나인 〈바울로 분한 자화상〉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런 점에서 당시 화단의 대표주자인 루벤스와의 비교는 우리 인생의 친절한 나침반이 된다. 루벤스를 포함한 많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그리스 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신화에 근거한 모호한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렘브란트는 이상화된 영웅적 묘사로는 성경의 역사를 그리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웅적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술이 어떻게 세상에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올바른 이미지에 대한 이해는 감상의 차원을 넘어 성경의 신비까지도 제대로 목상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진다. 렘브란트는 구구절절 복음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림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설명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루터의 첫 번째 독일어 번역판이 1522년 9월에 ‘9월 성경’(September Testament)이라 불리며 세상에 나왔다.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설명하는 21개 목

판화가 포함되었는데, 12번의 인쇄를 거듭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대중을 향한 종교개혁의 확산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계속해서 1523년, 루터의 구약성경이 빛을 보게 된다. 루터의 히브리어 번역에는 젊은 비텐베르크의 개혁자, 멜랑히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을 포함한 몇몇 히브리어 학자의 도움이 필요했다. 여기에도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의 판화가 실렸는데 이 중 몇 작품은 루터 자신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솔로몬 성전을 묘사하면서 그 세부까지도 놓치지 않고 구성해 내었는데, 이것은 그가 유대인의 이미지 사용 방법과 성경계시의 이미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저자는 르네상스 전성기에 어떻게 종교개혁의 이념이 형상화되는지 보여준다. 사실 동시대의 역사 안에서 ‘르네상스 전성기와 종교개혁’의 예술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줄곧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만큼 분명한 종교적, 미학적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전성기의 예술은 고대 그리스 미학의 정통 후예로 자처하는 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이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예술은 훗날 빙켈만(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1897)와 같은 미술사가들을 탄생시킬 만큼 매력을 지닌 것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이탈리아 미술의 전통과 종교개혁이라는 이중적 권위의 틀로부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는 종교개혁의 사상에 이르는 렘브란트 예술의 여정을 매우 의미 있게 전달하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소개된 성화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성화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목적이요 내용이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신앙을 고백하는 체험적 구원관으로의 성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 소개된 대로 당대의 지배적인 복음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던 렘브란트는 성경의 계시에 적합한 예술의 주제들에 관하여 묘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종교개혁 예술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실로 예술이 성경의 계시 안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환기시키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겼다. 이러한 렘브란트의 생각은 중세 가톨릭주의의 신학적, 교의학적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개혁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만든 미학적 발로가 되었다.

이 책에서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종교개혁의 미학적 움직임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저자의 표현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교회야말로 스스로 위기에 노출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다.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인한 위기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지만 우리를 늘 위기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엄숙한 고백이 담겨 있는 렘브란트의 성화는 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영성 확립을 위한 미학적 제안이 될 수 있다. 위기에 놓인 인간의 삶에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적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성화가 탐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렘브란트의 언급대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인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저자가 이 책에서 써내려 갔듯이, 〈절규하는 유다〉를 통해 인간 배반의 지형도를 보게 된다.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의리쯤은 쉽게 저버리는 사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한 교리적인 기초 없이 성장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위장된 선을 주장하는 허망한 대결, 팽팽한 암투, 기발하기 그지없는 지략 싸움은 중독성 강한 이야기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교회를 에워싸고 있다. 비뚤어질듯 엉켜있는 이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해나갈 것인가. 해답은 복음이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호해 왔던 복음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있는 기독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초석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메아리쳤던 교회의 개혁과 신앙 갱신의 목소리가 이 책 곳곳에 담겨있다. 과학화, 융복합화, 문명화를 추구하는 현 시대에 과연 교회의 개혁과 신앙 갱신의 출발점이 어디이며, 그 동력은 무엇인지. 저자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안용준 중앙대학교 독문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예술학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동 대학원 기독교철학과에서 ‘현대 개혁주의 미학’을 연구하여 철학박사를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미학미술사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 기독교미술과 겸임교수이며 연희동 원천 교회 협동목사, 미술 선교단체인 ‘아트미션(Art Mission)’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사회참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몫

신동식 (빛과소금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는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변화 가운데 가장 미진한 부분이다. 또한 성경을 강조하는 보수적 교회일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방 이후의 정치적 불안과 6.25로 인한 분단을 들 수 있다. 분단은 오랫동안 권력 기반이 되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해 국민들을 선동했고, 특별히 교회는 반공에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6.25 당시 교회는 공산당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공산당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쪽으로 피난한 이북의 교회들은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반공사상으로 뿔뿔 뿔쳐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이북에 교회를 재건하고자 하였는데, 지금도 대형교단에는 이북지역 노회가 존재한다.

정치세력은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이용하였고 그렇게 50년 이상이 지났다. 이처럼 반공과 기독교의 만남은 한국의 정치를 형성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교회로 하여금 통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종교분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교인들을 매수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사회문제를 말하는 것은 비신앙적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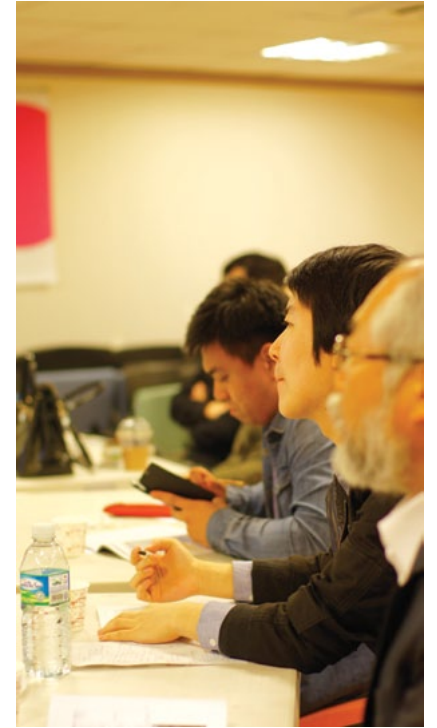
그러면 사회참여란 무엇일까? 보통은 정치적 참여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좁은 생각이다. 사회참여는 정치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회참여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 함께해야 변화된다. 그래서 서로 살피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참여에 대한 일반적 이해이다.



성경의 가르침

그렇다면 사회참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한 창조계를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만드시고 위대한 명령-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을 주셨다(창 1:26-28; 2:15). 아담에게 부여한 문화명령은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경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구속사를 담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역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부부-가족-씨족-부족-민족-왕국-제국-국가 시민사회-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하셨다. 이러한 모든 구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창조계의 모든 현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치·보존하게 하셨다. 이러한 통치의 현상은 오늘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둘째는 인간의 부패성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에는 온갖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살기로 작정한 세상은 점점 포악해졌다. 가인-노아-바벨탑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간악함이 점점 더 드러났다. 사사기는 그 절정을 보여준다. 사 21:25는 인간의 부패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부패한 인간의 소견이 어떠했는가?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은 국가와 정치 제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퍼져 있다. 부패를 막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참혹한 현실을 맞게 되고, 영광을 위한 문화의 결실은 왜곡된다. 이러한 불의함을 방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의함을 막기 위해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신다.

셋째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나고 질문하자, 주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현실참여 방법이다. 넷째는 성경에 나타난 국가의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세제과 군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이들의 정당한 행위에 순종할 것을 말하였고(눅 3:12-14),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

씀을 하셨으며(눅 20:24-24;요 19:10-11), 빌라도의 권세를 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다. 즉, 국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임의적 조직이 아니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를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다.

교회사의 증언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회, 현실, 정치에 참여해 왔을까?

이 문제는 역사 가운데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짧은 지면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간단히 스케치해 보아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교회는 펍박 가운데 국가에 불복종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로마가 무너지면서 신학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고, 당대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나누었다. 그는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현세에 섞여 있으며 구분은 해야 하지만, 사회와 국가를 긍정하고 그것을 영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신의 뜻 즉 영원한 예지에 따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에 국가가 관여한다면 항의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은 예외였다.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는 국가가 시민들의 일반 복지를 실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더 높은 목적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가 시민들이 지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총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국가의 이해이다. 국가가 교회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는 정부를 인간의 사회적 성향이 아닌 최악의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국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통치자들이 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통치권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루터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불의함을 보일 때라도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소극적인 저항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루터보다 한걸음 더 나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단순히 악을 억제하고 지상의 평화를 실현하는 세속적 영역의 임무뿐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구이며, 정부는 죄악을 억제하고 전체적 타락으로부터 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사역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위정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루터와 같이 저항권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칼빈의 생각은 그의 후계자



들이 배자와 독스에 의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저항권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종교개혁자들 이후 역사는 이들의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정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이들은 주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과 영국의 초기 청교도들이었다. 이들의 관점은 결국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국가에 대한 고백을 수록하게 하였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결코 분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이 출중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였고 많은 이들이 순교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는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노예해방 운동을 하였고, 로버트 레이커스가 시작한 주일학교 운동 역시 사회참여였다.

네덜란드에서는 목사의 정치참여가 자유롭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이면서 수상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그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 참여가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교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치에 동조하여 수많은 이들을 학살한 독일교회와 그들의 만행에 저항한 소수 고백교회의 모습은 교회 현실참여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참여가 지대했다. 조만식 장로가 주도한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지배에 항거한 3.1 운동,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등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근자에 프란시스 웨퍼는 낙태 반대 운동과 안락사 반대 운동을 정치 영역과 연합하여 시도하였다.



실천적 접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참여할 것인가?

사회참여는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성경과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이다. 우선 성경은 위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 권위가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터넷 신문 더보이스의 편집위원과 뉴스미션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문화와설교연구원 대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지윤리 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답변」, 「세간의 사과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 변혁의 삶」, 「청년 내가 가야 할 길」, 「정직한 성도 신뢰 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승리」, 「변화는 가능하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도서」 등이 있다.

사회참여의 모습은 다음 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1단계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구제와 복지의 의미가 우선될 수 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함께하며 돕는 것이다. 지역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따스함을 맛볼 수 있다. 2단계는 다양한 시민운동 참여로, 주변의 NGO들과 계몽적 성격이 강한 문화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틀을 공문화하여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사회의 담론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3단계는 현실 정치 참여이다. 현실 정치 참여는 풀뿌리 참여에서 시작하여 중앙정부의 참여, 즉 정권을 획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정치 영역에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부분이다.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현실참여 역시 중요하다. 불의한 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적극적인 투표행위와 감시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 교회 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교회가 정치적 결사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나치 시대와 같이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의함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에 침묵하지 말 것을 말씀한다.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투쟁하고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 웨퍼의 다음 말은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투쟁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해결책만 사용하고 정치적인 면으로 투쟁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반면, 기독교적인 해결책을 쓰지 않고 정치나 법적으로만 해보려는 것도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이다. 그 생각에 있어서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릇된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적합한 정도의 시민 저항의 한계 선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국가가 그 권위를 팽창시켜 성경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4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75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840,000		기타급여	585,000
	일반회비	4,255,000		소계	3,985,000
	기관후원금	4,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1,550,000
	기타후원금	108,000		사무실관리비	470,900
	월보구독료	688,000		통신비	322,770
	CTC후원금	330,000		우편료	147,760
	기타	500,000		소모품비	212,105
		비품		364,000	
		식비		426,600	
		복리후생비		2,532,006	
		교육비		1,044,20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		2,187,997	
		소계	9,478,338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0	
			CTC후원금	289,450	
	소계	11,471,000	소계	289,450	
기타수입	기타수입	384,57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000,000
	법인세환급금	184,150		발송비	683,240
	소계	568,720		소계	2,683,24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62,0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700,000
	미디어장학등록	0		세계관행사준비	264,190
	소계	62,000		소계	964,19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2,574,000
	학술지심사비	290,000		학술지발송비	499,930
	학술지게재료	550,000		학술지심사료	690,000
	저작권료	0		학회기타	100,000
	소계	940,000		소계	301,280
당월 수입액	13,041,720	당월 지출액	21,264,148		
전월 이월액	52,431,356	차월 이월액	44,208,928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4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0
	소계	1,550,000		소계	1,60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제작비	교정 및 디자인비	1,216,000
	도서판매비	638,100		편집비	300,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인쇄비	2,293,500
	기타수입	152,550		기타제작비	100,000
				소계	3,909,500
				사무실임대료	775,000
			복리후생비	681,760	
			회계용역비	1,100,000	
			식비	63,300	
			비품	1,210,000	
			우편료	10,870	
		회의비	13,600		
		소계	3,854,530		
		기타지출	세금	235,050	
			기타	22,000	
	소계	3,040,650	소계	257,05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기타	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0
	소계	0		소계	0
당월 수입액	4,590,650	당월 지출액	9,621,080		
전월 이월액	53,941,720	차월 이월액	48,911,290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김경현, 김고은, 김동찬, 김민지, 김병재,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은호,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준중, 박지만, 생명의강, 영음사, 이명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희정, 하태실, 황귀희 5천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정성, 김정은, 김재우, 김 준,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승룡, 박진희, 박천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성,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태석, 이민화, 이영홍,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향숙, 임선제, 임훈택,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충국, 정법재,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권상순, 김영숙, 김영환, 김은미, 김은민, 김효태, 민수진, 박지혜, 박현빈, 방선기, 양종태, 영양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최경복 1만 David Han, 강석현,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선욱, 고현경, 고재호,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숙, 김경식, 김경원, 김경화, 김고은,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도희,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법식, 김보경,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영남, 김영옥,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은혜, 김재엽,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종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판임, 김혁,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홍제,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라영환, 류은정, 류현모, 마민호, 박창국, 박경원, 박기언,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성인, 박시운,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인교, 백경은, 백은미, 백은석, 백현준,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순, 소중화,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경, 신성자, 신진선, 신현주, 신형교, 신호기, 신효영, 심인옥,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양행모, 양혜원, 오경욱,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원선희,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해구, 유화원, 유희진, 윤동수, 윤상현, 윤현석, 이 강, 이경숙, 이계섭,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숙, 이명현, 이문일,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승영, 이시영, 이연규, 이연의, 이요한, 이영규, 이원배,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화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종화, 정경미, 정동섭, 정용수, 박은정, 정정수, 정진우, 정현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향, 조재천,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상열, 최성두,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현식, 최호영,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한희진,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정석, 홍준호, 홍철의,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이종혁, 정상섭 2만 강대훈, 강용란, 김동우, 김세광, 김용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배성민, 배은경, 배지연, 변우진, 빛과소금교회, 신선영, 오하나, 우시정, 윤에스터, 이 건, 이명희, 이원준, 이인아, 이정주, 조미연, 조창근, 함부영 2만5천 문석윤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윤정, 김은정, 김지원, 김효순,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안용준,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태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정상록, 정은경, 조무성,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송실대학교도서관 4만4천 권순영, 윤정준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8만 권정아 10만 김미영, 김익원, 송봉호, 송인규, 윤원철, 전광성, 최태연 12만 이상용, 임동민 18만 양성만 21만 정영록 80만 김승욱

계 7,471,000원

기관후원

5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열린교회, 예성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계 4,000,000원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어 안 배울 이유

갑돌이와 을식이가 택시를 잡으러 길가에 서 있었다. 외국인 하나가 다가 와서 **“Can you speak English?”** 하고 물었다. 중학교 때부터 십 년 이상 영어공부를 했지만 전혀 자신이 없어서 둘 다 **“No.”** 하고 말했다.

“Entschuldigung, können Sie Deutsch sprechen?” 하고 물었다.

“이건 또 뭐야? 독일어 같은데, 영어도 모르는데 독일어를 어떻게 알아!” 둘이는 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Excusez-moi, parlez vous Français?” 또 물었다.

“이거, 야단났군! 이건 어느 나라말인지도 모르겠네!” 둘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日本語のできること知ってますか?” 했다.

“끈질기기도 하네. 이건 일본말 아냐? 일본말도 모르니 어떡하지?” 둘이 다 얼굴이 붉어져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你能说中国话?” “이건 중국언데, 중국어도 모르니 정말 부끄럽네.” 두 손을 번쩍 들고 돌아서버렸다.

그 외국인은 화가 나서 획 돌아서 가버렸다.

을식이: **“야 갑돌아. 우리도 외국어 하나쯤 배워야겠다. 이거 참 창피해서!”**

갑돌이: **“야. 다 소용 없어. 저 사람은 외국어를 다섯 개나 하는데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잖아?”**



WORLDVIEW NEWS

[학회지] <신앙과 학문> 19권 3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2014년 3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19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학회)

[매월/모집] 대학로에 선 기독교대학원생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 대학로에서 가까운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있습니다.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 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2014.6.27(금) 오후 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 문의 gihakyun@daum.net / 02-754-8004
- ※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IEW 간담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간담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세계관을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4.7.15(화) 오후 7시
- 장소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사무국 보고

2014년 1차 실행위원회의 실시

지난 5월 23일(금) 고신대학교에서 본 동역회 실행위원회 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많은 임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 춘계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5월 24일(토) 고신대학교에서 있었던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0일(토) 총신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②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③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④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플 점수 불필요
교수진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원서마감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기독교세계관온라인과정 VIEW Worldview Certificate Program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세계관 강의를 전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경영(business), 과학(science), 의료윤리(medical ethics) 과정 우선 개설
-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목과 과정이 추가로 개설
- 각 과정은 창조론필드트립(캐나다 록키 혹은 국내)을 포함한 4개 과목으로 구성
- 2014년 9월 가을학기부터 정식 오픈 예정
- VIEW 과정과 연계
- 교회 혹은 기관에서 단체 수강 할인 적용
- 문의처: theworldviewmedia@gmail.com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부임기념 강의

여호수아서의 신학과 윤리



전성민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수학과 (B.Sc)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 (MCS, Th.M)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D.Phil)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현) 기독교연구원 노혜이마초빙연구위원
 현)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 옥스포드 신학 및 종교학 단행본 총서(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에 『윤리와 성경내러티브』(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한국인 최초로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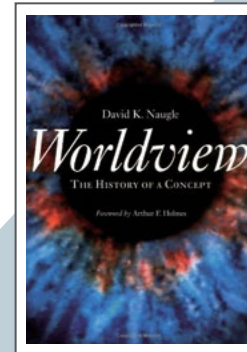
* <https://vimeo.com/wvmedia>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OK FUND 독자 북펀드란

독자 북펀드는 가치 있고 필요한 좋은 책을 발굴해 내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출간을 통해 문서사역에 동참하는 좋은 책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책을 출간하는 의미있는 동참!

그 첫 걸음으로 데이빗 노글의 <WORLDVIEW>를 소개합니다!



세계관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짚어 보는 책!

200년 기간에 걸친 세계관의 역사적, 철학적 개념을 짚어 보는 책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세계관의 역사를 신학적, 철학적으로 성찰하다!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지적인 개념에 관한 역사적인 검토

아더 홉즈, 제임스 사이어, 알버트 윌터스의 강력추천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 데이빗 노글 |

예상정가 25,000원

👤 독자 북펀드에 동참하기

25,000원
1구좌

cup21th@hanmail.net
02)745-7231
010-7344-4505
이메일,
전화로 문의

국민은행
600201-01-114936
김혜정
(도서출판 CUP)
계좌 입금

출간 이후 배송

*1인당 최대 10구좌까지 가능 (WORLDVIEW 예상 정가 25,000원)

👤 독자 북펀드에 동참하시면

*북펀드에 동참하신 분은 초판 발행시 책 내지에 이름을 게재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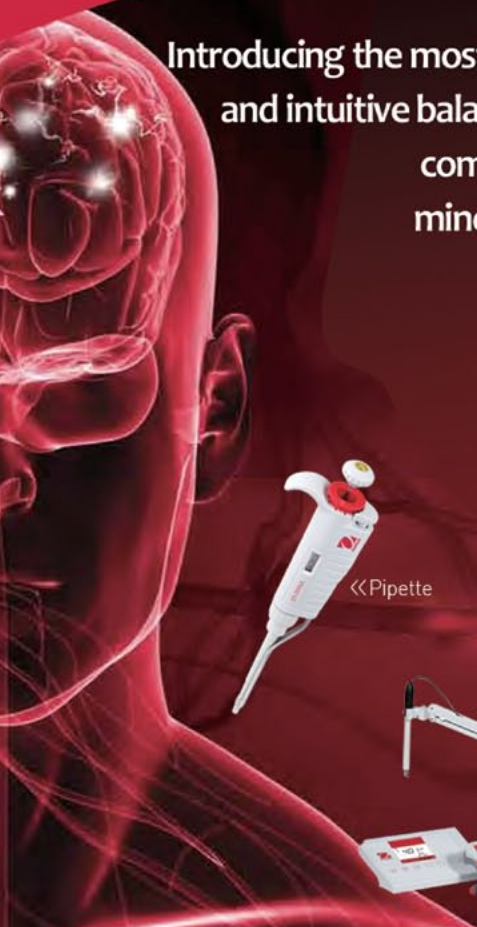
*북펀드에 동참하신 분께는 10%를 마일리지로 제공합니다. 마일리지는 CUP 도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745-7231, 010-7344-4505(김혜정) 도서출판 CUP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플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생생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www.facebook.com/ohauscorp

